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월요일 발표 (Num. 36)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 그레이스 한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으며, 멕시코 거주 한인들에게 직간접 영향되고 있는 소식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멕시코 정치 사회”**: 지난 소식지 35 호에서는 여당 연합과 야당 연합 후보들간 내년 멕시코 대권 도전을 할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경선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소식지에서는 최종 입후보자가 어떻게 되는지 및 여당 내부 분란과 두 후보들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았다.
- **“멕시코 경제”**: 지난 금요일 8 일 AMLO 행정부는 재무부를 통하여 2024 년 연방정부 수입안 및 지출안을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내년을 바라보는 주요 거시 경제지표 예측과 함께, 정부 수입안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요 세금 증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향후 예의 주시하여만 하는지를 안내하였다.
- **“멕시코 법률”**: 상거래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수표 및 약속 어음 기재 금액을 채무자에게 요구(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소멸시효를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 년 연방순회법원 판례와 함께 고민하여 보았다.
- **“멕시코 조세 & 세무”**: 대부분 고용주들은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기준에서,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는데, “사회보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계산”이라는 주제하에, 휴가비 및 연말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되어 일통상 임금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 20 여년 이상 실무 경험에서 자주 듣거나 접하였던 말씀들을 소개하고, 한인들이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하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위법한 사실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끝으로, 37 호 소식지부터는, 멕시코 한인 상대 신문 폐간으로 중단되었던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을 대략 8 년에 걸쳐 소개하려고 한다.

## ※ 멕시코 정치 & 사회

### 2024 년 멕시코 대선 최종 입후보 결정

지난 8 월 28 일 35 호 소식지에서는 2024 년 6 년 단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권 연합 및 야권 연합 후보들간 최종 입후보자를 놓고 겨루는 내부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었다.

당시, 야권 연합 (제도혁명당 <sup>PRI</sup>, 국민행동당 <sup>PAN</sup> 및 민주혁명당 <sup>PRD</sup>)에서는 국민 행동당 소속 여성 상원의원 소치틀 갈베스 <sup>Xochitl Galvez Ruiz</sup> 확정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으며, 여당 연합에서는 일반 여론 조사상 1 위 전멕시코시티 여성 시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sup>Claudia Sheinbaum</sup> 후보와 2 위 전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sup>Marcelo Ebrad</sup> 후보간 각축전 (여론 조사 상 평균 15% 격차)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당 연합 경선 투표 개표가 수요일 6 일 오후부터 시작, 익일 저녁, 이변없이, 클라우디아 후보가 최종 결정, 현대통령 AMLO 는 클라우디아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멕시코 역사 상, 최초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여성 두 명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누가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지 대선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변수로, 마르셀로 후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총 72 일 경선 기간 동안, 1 위 후보 클라우디아 후보측에 대한 비방과 함께, 대선 불복을 시사하였던 마르셀로 후보는 지난주 7 일 목요일, 멕시코 시티 WTC 에서 진행된 개표 최종 결과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언론 조사 개표 불법성을 지적하며, 재투표를 주장하고 (대통령은 재투표는 없을것임을 확인), 측근들과 함께 개표장을 이탈, 8 일 금요일에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24 년 멕시코 대선에 여당 모레나가 아닌 다른 정당 혹은 방법으로 대권 출마할 것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마르셀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여당 경선 주자들은 목요일 7 일 오후, 최종 입후보 결과 발표자리에서 결과를 인정하였고, 대통령은 동일 저녁, 클라우디아 후보 및 주요 각료들과 식사후, 클라우디아 후보와 별도 논의를 한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여당 (모레나, Morena, 국가재탄생 <sup>Movimiento Regeneracion Nacional</sup> 을 의미하는데, 역사 상 4 번째 변혁과 일맥상통한다고 이해하면 됨), 대통령 및 클라우디아 최종 입후보 결정자는 마르셀로 후보에게 탈당을 자제하고, 2024 년 연방국회 상원의원, 클라우디아 내각 구성원 참여등과 같이 달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마르셀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제일 유력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현연방국회 하원 의석 5%, 상원 의석 10%를 보유한 중도좌파 성향 시민운동당 *Movimiento Ciudadano* 후보로 대권 도전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으며, 여권 연합 경선 기간 중에도, 수차례 시민 운동당에서는 경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마르셀로 후보에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더욱 더 노골적으로 “정당으로 향하는 문은 어느 누구에게도 닫혀있지 않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마르셀로 후보가 시민운동당으로 출마한다면, 여당 표가 분산되어, 소치틀 갈베스 후보측에 유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및 일부 분석가들은 중도 성향 지지자들이 마르셀로 후보측에 집중함으로써, 소치틀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나름 논리를 펴고 있다.

클라우디아 후보가 대통령이 구호하는 역사 상 네번째 변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상황에서, 당선시, 반기업적, 친노동적 경향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을 보자면, 나름 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치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사업 환경 (고용주)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예를 들면, 소치틀 후보는 대통령이 인권 강조를 하며, 멕시코 주변 라틴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향하여 멕시코 입국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미국이 적대국으로 분류하는 쿠바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외교 관계 반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소치틀 개인은 상원의원과는 별개하여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인으로서, 사업 환경에 대한 실무적 이해 바탕, 원만한 기업환경 구축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마르셀로 후보측이 주장한 것처럼, 경선 및 여론 조사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경선 기간 동안, 어떤 이유 (?)로 접한, 마르셀로 후보 선거 캠프에 속하는 연방국회 소속 모국회의원은 식사자리에서 필자에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론이 조작되어, 실제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마르셀로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 멕시코 경제

재무부 2024 년 연방수입 및 예산안 9 월 8 일 금요일 국회 제출

AMLO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지막 2024 년 회기 연방수입 및 예산안이 국회 하원에 지난 금요일 8 일 제출되었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납세자 조세 의무 충실준수 여부 감시를 강화한다”는 AMLO 대통령 취임시 공언하에, 제출된 2024 년 예산 및 수입안에는 취임 약속과 같이 특별한 조세 법률 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 개혁은 대통령 취임 2 년차에 시행되고, 임기말에는 차기 대통령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혁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시 경제측면에서 중요한 지수 관련 아래 예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23 년	2024 년
실국내 총생산 성장률 %	2.5 ~ 3.5	2.5 ~ 3.5
USD\$ 1 달러 대비 페소화	17.3	17.6
연평균 인플레이션	4.5%	3.8%
석유 배럴당 평균달러	67.0	56.7
28 일 정부 국채 (CETES) 이자율	11.2%	10.3%

2024 년 정부 지출 (2023 년 대비 4.3% 증대)을 충당하는 정부 수입안을 살펴보면, 총 MX\$9,066,045.8 백만페소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조세 수익 MX\$ 4,942,030.3 백만 페소는 2023 년 대비 6.1% 상향 목표하고 있다.

조세 수익 상 주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sup>ISR</sup> 수입은 내년에는 3.0% 증가된 MX\$ 2,709,899.5 백만페소, 부가가치세 <sup>IVA</sup> 2.6% 증가된 MX\$ 1,330,421.0 백만페소, 특별소비세 <sup>IEPS</sup> 32.0% 증가된 MX\$688,083.6 백만페소 예상하고 있다.

2024 년 총 정부 지출 중, 2.5% 점유 MX\$ 222,668 백만페소는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7 개 정부 추진사업에 예산 집중될 예정이다 (MX\$. 백만페소).

- 마야열차: \$120,000
- 수자원 공사 수로 유지 및 건설: \$39,475
- 교통 통신 망 유지 및 건설: \$35.133.5
- Istmo Tehuantepec 발전: \$21,059.3
- 멕시코 -톨루카 철도망 완공: \$4,000
- 펠리페 앙헬레스 신공항과 1 호선 철도 정거장 노선 확대: \$2,000
- 대통령궁 및 차폴테펙 공원 문화 시설: \$1,000

복지 프로그램 중 제일 많은 상승율을 보인 부분은 노령인 상대 연금 2024 년 예산 MX\$465,049 백만페소로, 2023 년 대비 32.3% 증가, 장애인에 대한 연금 MX\$ 27,860 백만페소로 10.4% 증가하였다.

8 일 금요일 제출 예산안은 먼저 하원에서 심사/의결하고 이후, 상원에서 심사/의결 절차를 10 월말까지 통과하여야만 하고, 지출안은 하원에서만 단독 심사/의결 절차를 거치는데, 11 월 15 일까지 통과하여야만 한다.

고용주들은 2024 년 정부 예산과 별개하여, 2024 년 하루 법정 최저 임금은 얼마나 될지 걱정하는데, 증가하는 것은 100% 확실한 상황에서, 얼마큼 상승율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있다.

고용주 연맹 (Coparmex)에서는 올해 2023 년대비 2024 년은 10% 증가 MX\$ 228.75 목표하고 있지만, 정부 및 노동자측 대표들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AMLO 임기초 2018 년 하루 최저임금은 \$88.36, 2019 년 \$102.68, 2020 년 \$123.22, 2021 년 \$141.70, 2022 년 \$172.87, 2023 년 현재 \$207.44 되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1 주일 중 5 일 근무, 연말보너스 한달 지급등 노동법 개혁안이 논의 중에 있다.



## ※ 멕시코 법률

### 채권 소멸 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위와 같이 정의되는 데, 실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래 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 약속어음 (pagare): 지불 약정일로부터 3 년 (채권법. 174 조)
- 수표 (cheque): 지불 예정일로부터 6 개월 (채권법. 192 조)
- 소매 영수증: 판매로부터 1 년 (상법 1043 조)
- 도매 영수증: 판매로부터 10 년 (민법 1159 조)

그렇다면, 어떻게 소매 및 도매 영수증을 구별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 있는데, 채권법, 상법 및 민법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 관계, 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 년 3 월 연방순회 법원 소수의견 (tesis aisladas: III.5o. C.54 C (10a.))을 살펴보면, 소매 영수증은 사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을 때, 도매 영수증은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였을 때로 구분하고 있다.

(법률은 추상적으로 기술되어있는 관계,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 판례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 판례는 기준이 확정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소수 판례 (의견)(Tesis aislada)로 차별화된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채무자에게 지불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관계, 채권 소멸시효 사례를 보고 있자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채권들 중, 소멸시효가 짧은 수표에 있어서, 6 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원 휴무 기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2020 년 멕시코 북부 치후아후아 (Chihuahua) 발생 논쟁은,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 수표 기재 금액 지불을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한 관계, 법원 개입을 요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원고) 송장을 통한 수표 지불에 대하여, 이미 6 개월 소멸시효되었으니,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6 개월되는 날짜가 법원 휴무로 제출되지 않아, 예외된다고 하였을 때, 하급법원은 채무자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고, 원고는 불복, 헌법소를 제출하였다.

최종심을 다루는 연방순회법원 (TCC)은 판례 (Tesis aislada: XVII.2o.1 C (11a.)) 의거, 2021 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법원 휴무 원인, 채권 추심을 기한안에 하지 못한 경우, 법원 휴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첫 영업일을 소멸시효되는 날짜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소멸 시효는 단순히 채권에 국한되지 않고,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안정성 차원, 원고/피고는 특정 기간안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후, 해당 권한이 소멸된다. 즉,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사족: 멕시코 성당에서 주관하는 결혼 미사에 참석하였다면, 신랑신부 결혼 선언을 하기전에 결혼을 주관하는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현재 신랑 신부 결혼에 이의가 있으면, 지금 손을 들고, 이견을 이야기하라. 만약,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혼 선언후, 영원히 침묵해라!”: 소멸시효)

## ※ 멕시코 조세 & 세무

### 사회 보험 기준 통상 일임금

멕시코 사회보험, 혹은, 해고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근로자 통상임금은 “노사 종속 관계 형성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직원 통상임금이 올라가게되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사회보험청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에 납부하는 고용주 부담분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계, 모든 고용주는 통상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직원에게 최대한 혜택이 있는 방법을 나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탄생한 것이, 식품구입권 (일명, 발레스 Vales 명칭), 저축 장려금 (Fondo de ahorro)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Vales, Fondo de ahorro, 교통비 지원, 식사 지원등과 같은 직원 상대 사회복지 자금은 대부분 (99%) 현금으로 지불될 수 없다. 이는 극소수 고용주들이 통상임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루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대부분을 사회복지금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9 월 1 일 시작, 멕시코 정기국회에서는 1 주일 중 5 일근무, 주 40 시간 근무 및 연말보너스 한달 지불과 같은 노무 이슈가 심의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과 연결되어있으니, 국회 통과를 유심히 살펴보고, 통상임금에서 법무 재무 세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 철수는 주급 \$2,100 을 받고, 노동법 (LFT) 의거, 최소 권한만을 보장받는 다고 가정을 하여보자.

위와 같은 근로환경에서, 노동법 기초, 최소 권한은 1 년만기 후, 12 일 휴가에 대한 25% 휴가 수당, 15 일 연말보너스이므로, 하루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하루 임금: \$300 (\$2,100 / 7 일)



- 15 일 연말보너스 (aguinaldo): 15 일을 365 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에서, 0.0410 비례한 금액 수령  
✓ \$12.30 (\$300 x 0.041)
- 12 일 휴가 관련 휴가 수당 (prima vacacional): 12 일 휴가 기간 대비하여 25% 휴가 보너스 수혜를 받고  
있으니,  $12 \times 0.25 = 3$  일 임금을 1 년안에 받는 결과된다.  
✓ 3 일 임금 해당 \$900 을 1 년 365 일로 나누면, 하루 \$2.4657 수령

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철수는 매일 **\$314.77** (\$300 + \$12.30 + \$2.4657)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일과후,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하루임금과 햄버거를 맞교환 (통친다)하는 결과된다.

간단하게, 하루 임금, 연말보너스 및 휴가 수당만을 보았는데, 잔업 시간 역시, 사회보험금 산정을 위한 일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잔업 시간 관련, 현멕시코 노동법에서는 1 주 최대 근무시간을 48 시간, 주중 최대 6 일근무하고 있는데, 최대 근무 시간 48 시간을 초과하는 9 시간은 100% 시급 적용되고, 9 시간을 초과하는 시급은 200% 시급 적용된다 (일반론).

**노동법 66 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일을 연장할수 있으나, 하루 3 시간, 일주일 중 3 번에 한정한다.**

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2013 년 7 월 연방대법원 2 부법정 판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사업체들이 1 주일 중, 9 시간에 한정하여, (예제 1: 월요일 4 시간, 수요일 3 시간, 금요일 2 시간 잔업), 혹은, (예제 2: 월요일 4 시간, 화요일 1 시간, 금요일 4 시간)등과 같이 잔업을 하고, 일반 시급 대비 100%를 지급하였었는데, 언급 판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 시간을 언급하는 관계, 주중 9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하루 3 시간 초과 시간은 200%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00% 시급이란, 시간 당 \$20 을 받는다고 하였다고 하면, 기존 시급을 제외하고, 별도 \$20 을 받는다는 것이고, 200% 시급이란, 기존 시급 대비 별도 \$40 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13 년 7 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서류를 당시에 계산식과 함께 멕시코 한인 상대 교민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고, 다음 소식지에 연재할 지를 고민하여 보도록 하겠다.

## ※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

주변 사람들도 많이하고,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한다 (★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문제 없던데, 그러니깐 맞아!, ★ 내가 확인했는데, 확실해!, ★ 주변, 사업체들과 대기업도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 맞겠지!, ★ 내가 항상 이렇게 하고 문제가 없었으니, 맞겠지!).

20 여년 상당 전문업무를 하며 확인한 실제 두 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규모 사업체:** 정확히 알지못하면서, 특정인을 확인하여줌으로써 발생한 사례. 2003 년말 발생한 사례로써, 필자가 아직도 대학교 재학중일때, 어떤 이유로, 주말에 멕시코시티 도소매 시장에 있었다.

지인으로부터 핸드폰을 통하여, “잠깐 간단한 통역을 부탁해도 될지요?” 연락을 받아고, 마침, 대략 20 미터 근방에 있어서 사업장에 도착하여 보니, 국세청 공무원 두 명이 방문하였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xxx 을 요구하는데, 통역을 부탁하였다.

말끔히 양복을 차려입은 두명이 있었는데, 정황을 보니, 이상했다. 허접한 국세청 서류 및 주말에 국세청 공무원 방문 기초,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하니, 순간, 두명 모두 당황!. 결론: 가짜 공무원들로 줄행랑.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오래전 (?)부터, 한인 도소매 상점을 방문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현재 한화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보호비 갈취를 하였는데, 시초는 첫 A 한인 상점에서 국세청 공무원 사칭으로 몇 백만원 갈취..이후, 다른 B 한인 상점에서 국세청 공무원 사칭을 하고, 의심을 하면, A 업체 한인에게 통화를 하게끔 함...A 업체 사장은 B 업체 한인에게 국세청 공무원이 확실함을 강력히 어필함..이후 C, D, ...Z 모든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주기적으로 수십군데 사업체들이 몇백, 몇천만원을 상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변에서 모두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고, 보호비를 주어서 세무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는 흔하지 않다),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여, 두 명은 보호비를 통하여 베짖이처럼 호위호식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전설이!!!!

대기업 및 주변 사업체: 협력업체들이 많이 하는 오해로서, 주변 기업, 특히,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옳다고 인식하여 하는 특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틀릴수 없다는 맹신!).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는 대부분 내부 법무팀, 재무팀을 두고 있어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 자문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체 규모를 감안시, 취급하는 금액도 상당하고, 전문직 인원 고용에 있어서, 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도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기업 행위가 법적으로 맞다 (합법한 사업활동이다)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고 (1 차 협력사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음), 나름 엄격한 기준으로 협력사를 선정 관리하고 있는데, 협력사들은 주요하게 두 개 문제 상황 요약될 수 있다.

- 필자에게 설명한 특정 사례 (노무, 상사, 관세, 조세등)는 대기업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발생
- “멕시코 법률”에서 사법부 판례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사법부 판례 및 기초가 되는 판결문 연구에 등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잘못된 상거래 (멕시코 정치 사회 환경 및 주요 조세 기관 경향 파악 중요)

36 호-11092023



2005년부터 전문 서비스 업무 시작 및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 김영곤은 **멕시코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포함 사업 관련 전문 기타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한국어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유일 법률 회계 전문 사무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QR Code 링크) 에서는 멕시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법률 회계 조세 관련 1,400 개 넘는 기초 자료 및 2,700 개 이상 일일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Virreyes, CDMX
전화번호	55 5202 9866
이메일	<a href="mailto:embcoreamx@mofa.go.kr">embcoreamx@mofa.go.kr</a>

KOTRA 멕시코 시티 무역관	
주소	Paseo de la Reforma 265, Cuauhtemoc, CDMX
전화번호	55 5514 3173
이메일	<a href="mailto:mexico@kotra.or.kr">mexico@kotra.or.kr</a>

주 멕시코 한국 문화원	
주소	Temistoles 122, Polanco, CDMX
전화번호	55 6284 3247
이메일	<a href="mailto:culturacoreana.mexico@gmail.com">culturacoreana.mexico@gmail.com</a>



- YG consulting® 대표
- 변호사 (LD)
- 공인 회계사 (LC)
- 행정 소송 전문가 (EJA)

- 연방 사법부 등록 조세 감정사
- 연방 사법부 등록 회계 기장 감정사
- 멕시코 연방 및 멕시코 시티 등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 멕시코 UNAM, 법대 대학원 박사 논문 중
- 멕시코 UNAM, 법대 대학원 석사
- 멕시코 상급 연방 행정법원 (TFJA) 전문인 파정 졸업
- 멕시코 UNAM, 회계 학사 (조기 졸업 & M.H)
- 멕시코 UNAM, 법대 학사 (조기 졸업 & M.H)
- 한국 국민대, 기계 공학부 학사

##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0)

2005년부터 전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신문에 연재문을 보내며, 나름, 글쓰기에 재미를 붙였다. 처음에는 연재문을 보내는 날짜 기한에 쫓기며 하던 것이 미리미리 조금씩 쓰는 것으로, 남을 가르친다는 건방진 생각에서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정리하며, 이론을 실무에 결합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업무 시작 초창기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잘못된(허황된) 생각에서, 계속 공부를 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지식이라는 큰 산을 접하며 겸손 (좌절감)을 느끼고, 고민하였던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정 하나로 하루에 조금씩 큰 산을 상대 터널을 만듬에 있어서 되는 데까지 구멍을 내고, 현재생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 주자가 계속하여 이어갔으면 하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글 전문 문서만 보면 3,000 장을 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2000년 멕시코 도착 이후, 많은 신문들이 폐간 및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폐간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다짐을 주었던, 한인매일, 엘코리아노, 한국일보를 끝으로, 멕시코 한인사회에서 한인 상대 신문이 몇 년간 없다가, 몇 개월전에 디지털 한인신문이 탄생하였는데, 초창기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자그마한 응원을 보낸다.

기존 연재문들 중, 나름 심혈을 기울이고, 연재를 하였던 서류가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이라는 서류로서, 현재는 400 여장 분량되는데, 2021년 중순부터 초기 30 여장 정도만 연재되다가 신문 폐간이라는 비극 (?)을 맞이하여 의도치 않게 중단되었다.

세무 감사를 맞고 있는 사업체에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격주마다 발행되는 YG consulting 소식지에 두 장 분량을 공개할 예정이라, 단순 계산식으로, 한달이면, 4 장 공개 계산시, 100 개월 (8 년 4 개월)되는데...고민이다. 의뢰인들과 약속을 넘어, 나 자신과 약속이 될 것 같다.

많은 서류들 중,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을 택한 것은 세무 감사를 맞고 있는 사업체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근래에 많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서류는 “약방에 감초” 성격으로, 쉽게 보면, 축구를 할 때, 11 명씩 팀을 나눴는데, 실력이 없는 한 명이 남아!, 축구 경기에서 빼기에도 그렇고 (섭섭해!), 상대방에 한 명 더 있다고 경기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주는 (?) 사람 (깍뚜기)으로, YG consulting 소식지를 읽다가 시간 여력이 되신다면 읽으면 좋고, 읽지 않아도 되는 성격으로 편하게 해석하였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아래 QR 코드 혹은 링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oticeKo&page=5&document\\_srl=5316](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oticeKo&page=5&document_srl=5316)